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9>



출가를 거절당한 청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는 그를 너무나도 귀히 여겨 온 정성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좋은 스승에게 교육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몹시 교만하였습니다. 부모의 힘든 고생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는 당연히 그런 사랑을 받는 거라 생각했던 마음이 허황하여 조금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아침에 배운 것은 저녁에 잊어버리고, 저녁에 배운 것은 아침이 되기도 전에 기억 지면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 해를 교육시켰지만 조금도 똑똑해지지 않자 부모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다 가업을 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허황하여 부지런히 노력할 생각이 없었기에 살림은 점점 궁핍해져갔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방탕하기까지 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집안 살림살이를 내다 팔아 자기 유희비로 써버렸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자면, 머리는 마구 흐트러졌고, 맨 발로 다니며 옷은 더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처님이 어서 거두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부처님은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도를 구하고자 하면 먼저 그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저 세속의 때(垢)를 가진 채 그대로 우리 도에 들어오려 하는구나. 부질없이 마을대로 왔다 갔다 하니 무슨 큰 이익이 있겠느냐?”

청년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곳이 다음 가르침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거라.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외우고 익혀 목숨을 마칠 때까지 잊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는 더 낫다. 부지런히 생업에 힘써 부자가 되어 집안에 근심이 없게 하라. 예의로 몸을 지켜 잘못을 저지르지 말며, 목욕한 뒤에 깨끗한 옷을 입어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잡고 오롯하게 지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라. 굶뜨게 움직이지 말고 민첩하게 행동하며 세밀하게 자신의 행동거지를 살피며 남에게 칭찬받고 홀모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실천해야 도를 닦을 수 있는 법이다.” (법구비유경 제3권)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도나 닦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 닦는 일은 세

세상일 뜻대로 안될때 ‘도나 닦자’라고 말합니까만 생활에 최선 다한 사람에게 출가 자격을 주셨군요

욕심이 많아 남에게 인색하고 게다가 당돌하기까지 하여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고 다른 이의 경멸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행하여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피해갔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그제서야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남을 원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하였고 다음에는 자기를 몇 년 간 가르치던 스승을 비난하였고 급기야 친구들을 탓하였습니다. 그의 남 탓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나를 돕지 않아 내가 부랑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처럼 고생하는 것이다.”

그는 어디서 들었는지 부처님이란 분이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건져준다는 소문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부처님을 섬겨 그 복이라도 얻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그는 부처님 대신 곳으로 나아가 이렇게 청하였다.

“부처님의 도는 너그럽고 넓어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출가를 만류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깊이 새겨보면 수행이란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 수행하기, 도 닦기.

이런 일들은 재가생활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먼저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형식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갖추어지면 나에게는 격(格)이 생길 것이고, 그 격 속에 자음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계율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재가자들이 수지하는 오계라는 것은 사실 뭐 그리 대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오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제 외가법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반듯한 하나의 인격체로 남에게 비쳐질 때 비로소 선정에 쉽게 들 수 있고 지혜를 발휘 구체적인 수행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불자들이 공부해야 할 세 가지, 즉 삼학(三學)에서 가장 먼저 계율이 자리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미경(통국역경원 역경위원)



재덕 스님

(순창 강천사 주지)



복을 지어아 복을 받는다는 인과의 도리를 믿고 착하게 살라고 늘 강조하는 재덕 스님.

부처 닦아가는 이가 참불자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청정히 하면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칠불통계(七佛通戒)입니다. 이 안에 불교가 다 있습니다. 팔만사천 경전에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지만, 그 내용이 전부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 선행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승한 공덕이 있는 것이지요. 불교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불교자



빛마루에 놓여있는 재덕 스님의 지팡이와 고무신.

제가 어렵게 아니고 ‘중선봉행’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부처님이 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라는 간단한 답으로 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경계는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전생에 또는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들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조건들이 관계지어져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요. 다시말해 원인이라는 인(因)과 조건이라는 연(緣)이 만나 열매(果)가 맺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인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면 응당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수구성의신막범(守口攝意身莫犯) 여시행지능득도(如是行者能得道)

입을 지키고 뜻을 삼수하며 몸으로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실천하는 이가 능히 도를 얻으리라

선업과 악업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계(戒)입니다. 계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처지에 맞는 계를 줍니다. 스님에게는 스님에 맞는 계가 주어지고, 재가불자에게는 재가불자에 맞는 계가 주어집니다. 신라시대 화랑에게는 불교의 5계를 바꾸어 세속 5계를 내렸습니다. 세속 5계의 내용에는 불살생과는 맞지 않는 살생유택(살생하되 가림이 있으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개차(開遮)의 도리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괴로움이 없는 이가 아니라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아

법입니다. 누구도 인과의 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믿는다면 마음 닦는 수행이 뭐따라야 합니다. 수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삼수를 근간으로 합니다. 삼수가 없다면 수행은 진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받아들이는 가운데 수행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욕이라 했습니다. 인욕과 삼수를 행하는 수행자에게는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치열한 수행심이 괴로움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괴로움이 없는 이가 아니라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행에 승속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이 개차의 도리를 <계초심학인문> 첫 구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릇, 처음 마음을 일으켜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라. 오계 심계를 받아 지키고 범하는데 열고 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夫初心之人 須遠離惡友 親近賢善 受五戒十戒等 善知持犯開遮)’

언뜻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를 범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일진대 ‘열고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는 것은 무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죄 역시 연기법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죄는 본래 실체가 없이 연기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잘못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마음과 죄가 사라지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수행법에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얽여져서 마른 풀이 불에 타버리듯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 심약멸시죄역망(心若滅時罪亦亡) 죄망심멸양공공(罪亡心滅兩俱空)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를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람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올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졌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어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경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시즉명위진참회(是則名爲眞懺悔)

죄는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고 허망한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없어지나니 죄와 허망한 마음 둘 다 비워지면 이를 일러 진실한 참회라 하느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불교는 기복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절에 오면 부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쁜 일은 부처님이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복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자신이 복을 지었는지 되돌아 보세요. 복을 지으면 복이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절에 가서 인과법을 공부했으면 절을 나서서도 인과의 도리를 믿고 작복을 해야 합니다.

기복과 작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을 빌기만 하면 기복이고 복을 지으면 작복입니다. 작복 불교는 기복을 한차원 높은 신앙이예요. 복 짓는

자연을 마음으로 대하고 잘 살리면 심신 깨끗해져 인과 도리 믿고 복 짓자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정당해져야 합니다. 선한 씨앗에서 선한 열매가 열리듯 복을 지음으로써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때만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 또한 불자란 도리가 아닐까요? 슬기롭게 산다는 것은 분수에 맞게 산다는 뜻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 것과 같아요.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고들 합니다. 각종 사회문제를 보면 종교를 믿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종교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거나 종교의 가르침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수많은 종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 아닐까요? 종교는 인간이 지나야할 양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사현정(破邪顯正)과 지악수선(止惡修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삼척 삼장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매주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와 목사, 신부를 초청해 때면 같은 시간대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면식이 있는데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성직자 세 사람이 만나서 서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무수히 많은 벽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색함은 은데간데 없어지고 분위기가 밝게 바뀌더군요.

세상 사는 이치는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 벽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없는



재덕 스님은, 불교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벽도 있게 만드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란 것이 쉽게 열리질 않습니다. 어떤 현상 앞에 서면 자신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져 위축되고 말지요. 수행은 마음을 열어주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사람들은 ‘수행’ 하면 단박에 부처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수행의 결과는 그렇게 단박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면 서서히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이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과 가깝게 지내세요. 자연을 마음으로 대하고 잘 살피면 비로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당가의 풀을 뽑는 가운데 불교가 있고, 숨을 쉬는 가운데 불교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내안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으며 내가 없는 곳에도 있습니다.

정리·박봉연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재덕 스님은 “재덕(在德)이요 부재(不在)이니라(덕은 있고 흠은 없어야 하느니라)” 은사의 노스님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일러준 가르침을 평생의 화두로 삼아온 재덕(在德) 스님. 16세때인 1940년 순창 구암사에서 청우(淸雨)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장성 백양사 만암 스님 문하에서 불교전문강원을 거친 뒤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중퇴했다.

삼척 삼장사에서 30년간 도량법사와 포교에 매진하면서 얻은 별명이 ‘포교꾼’.

미래불교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로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와 불교청년회를 결성했고, 중앙유치원을 건립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힘써 왔다.

재덕 스님은 1992년 순창 강천산 깊숙한 자락의 강천사로 자리를 옮긴 뒤 매일 풀을 뽑으며 일어나는 번뇌를 다스리고 있다. 법호는 서광(西光).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일 스님

스님들은 종교인이기에 앞서 수행자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지열한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해야만 수행자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은 다만 형식상의 구분에 불과하며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선방에 많이 다녀도 나중에 그 이력으로 한자리 해볼까 한다면 이판중의 사판이고, 절 주지를 살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하게 산다면 그 스님이야말로 사판중의 이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있을지라도 처음 먹은 그 청정한 마음이 변치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다.



도일(道一) 스님은 수십 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귀를 기울이며 외경만을 곁어온 화승(華僧)이다. 스님은 경전을 독송하거나 공부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스님은 1970년대, 십대 후반 나이로 속리산 법주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경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했다.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같은 것은 그 의미와 내용을 모두 외워버렸다.

그런 모습을 강주(講主)스님이나 중강(中講) 스님들이 잘 보았는지, 어느 날 스님에게 행자들을 가르치는 소임이 주어졌다. 그런데 행자들이 모인 방에 가 보니 모두 스님보다 나이가 많았다. 도일 스님의 은사스님 나이와 같은 노행자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행자의 아들이 스님 과 동갑이었다. 그런 나이 많은 행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자 떨었다. 스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강이 되고 새로 들어온 스님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았다.

이렇게 법주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불국사에 가서 윤기(雲起) 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사도(師事)받게 된다. 그러면서 불국사 강원의 역사도 새로 시작되었다. 스님은 그곳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중강 소임도 같이 보게 되었다.

그 후 스님은 오래된 고문서들을 번역하는 곳인 국역연수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불교경전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문화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스님도 응시했다.

얼마 후 스님은 합격 유무를 알기 위해 고사장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전장이 일어났다며 길거리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간신히 발표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닌가. 모두 피난하기 위해 시험의 합격 유무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전쟁보다도 합격 유무가 더 중요했는지, 끝까지 가서 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북한의 이용병인가 하는 사람이 전투기를 들고 와 투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렇게 5년 동안 국역연수원 생활을 하며 공부했지만, 스님은 공부에 더 집중을 못했다. 학문은 하면 할수록 어려웠다. 특히 한문은 고문(古文)과 현대의 언어인 백화문(白話文)이 쓰이면서

수십년간 경전공부 외길 힘겹게 유학 마치고 講主로

더욱 알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스님은 대만 유학을 결심, 대만으로 건너가 처음에는 맞지 않는 기후 풍토와 생활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도움을 받게 된다.

대만에는 스님들의 음식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아예 스님들 채식식당이 있다. 스님도 대만 풍습에 따라 채식 식당에서 매일 식사를 해결했다. 그러나 채식 식당은 일반 식당에 비해 가격이 더 비쌌다.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다 채식 식당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와서, 어떤 신도가 앞으로는 식사비를 모두 내기로 했으니 무료로 먹으라고 하였다. 아무래도 그 대만 신도가 스님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모양이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이 되었다. 갈 때는 감사인사를 해야겠기에 식사를 보시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으나, 그 보시자는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한 것이다.

그렇게 2년여의 대만 유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스님은 수십 년 전 출가한 법주사 강원에서 강주(講主) 소임을 맡게 된다. 스님의 말에 의하면, 처음 경전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강주 스님에 대한 존경, 학문에 대한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진 것 같아 감개무량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어떤 때는 불교TV에 나가서 경전을 설명하기도 하고, 신도들 앞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 전선에 서도 새로 시작되었다. 스님은 그곳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중강 소임도 같이 보게 되었다.

■ 청원 현암사 총무

부모와 함께하는 제1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수용과 이해와 사랑 키우기

최근 참선, 명상 등 불교수행법이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른방학**을 이용,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실시합니다.

- 자신의 원한 찾기 및 자기 창조하기 • 나는 누구인가? 탐구하기 • 마음, 알기, 표현하기, 나누기 훈련
- 몸 나누기 명상하기 •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 에너지그램을 통한 자기 이해하기 • 지점도 작업을 통한 자기 보기
- 절 명상 • 절 명상을 통한 참회 명상 • 진언을 통한 자기 명상 • 산행 명상 • 취침 명상 • 감사 명상 • 화해 명상
- 축복 명상 • 버리기 명상 • 불꽃 명상 • 서원 세우기 훈련 ...

- 목표 및 기대효과**
- 메시에 도움이 되는 질문법을 체화한다
 - 자신의 감정과 그 뿌리를 볼 줄 안다.
 -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잘 듣는 태도를 갖게 된다.
 - 긍정적인 신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랑하는 심성을 갖는다.
 -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 24일(일), 3박4일간.
장 소 : 다보사 다보수련원(충북 괴산)
대 상 : 초등학교 5학년~중학생 선착순 60명 (관심 있는 부모님도 교사 참가 가능)
참가비 : 150,000원(월간「불광」, 격월간「불교와 문화」 정기구독자 10% 할인)
진 행 : 김남선(교사, 심성수련프로그램 다수 진행) 외 12명

참가접수 및 자세한 일정안내
월간 불광 <http://www.bulkwang.org> 02 - 420 - 3200
격월간 불교와 문화 <http://buddhistculture.co.kr> 02 - 719 - 2606



주최: (재)대한불교진흥원 | 주관: 월간「불광」· 격월간「불교와 문화」 | 후원: 불광사·불광법회/다보사다보수련원 | 도서협찬: 문학동네·대승비람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이대사가 넘었다는 총영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의 접목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소카 대왕이 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택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택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기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툼andu-인천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의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